

사회

장휘국 교육개혁 속도조절

'야자단축' → 밤 10시까지 허용 고교 심화반 편성 금지 → 허용 전국 일제고사 반대 → 횡수 최소화

광주시교육청이 애초 편성을 금지했던 고교의 심화반을 허용하고 1, 2학년의 자율학습 시간을 9시부터 1시간 늘리는 내용의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휴일 자율학습 전면금지 등은 기존안을 고수해 토·일요일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몰리는 등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 야간 자율학습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불참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대책도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이 확정된 안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은 오전 7시50분 이전 등교가 금지되며 자율학습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1, 2학년 금지, 3학년은 오후 6시로

제한된다. 3학년 자율학습 시간은 당초대로 밤 10시까지다. 일요일은 교실개방을 금지하는 등 전 학년이 휴무한다.

기존안의 고교 1,2학년 자율학습 시간(밤 9시까지), 심화반 편성 금지 등 공청회와 여론 수렴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등의 강력한 반발로 일부 수정됐다.

이에 따라 자율학습은 1,2학년의 경우 평일 1시간 연장된 밤 10시, 3학년은 토·공휴일 1시간 연장됐으며 수준별 수업인 심화반 운영은 허용됐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참여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규수업 이후 진행되는 방과후 학

교(보충수업)는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며 선행학습, 교과진도 진행은 금지됐다.

시 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상설점검반을 운영, 위반한 학교는 장학지도와 종합감사, 행·재정적 제재 등을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자율학습 대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선 보고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자율학습 불참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장 교육감은 22일 "지나친 성적 위주교육을 지양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고교 대상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조금씩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제고사 시행에 부정적이었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교 1, 2학년의 경우 한 해 4차례에서 2차례로, 3학년은 지난해와 같이 4차례 시행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휘국 교육감 취임 100일
"비리 없는 교육 환경 조성"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22일 "더 친절한 교육청,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청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지역 교육감들보다 취임이 4개월 늦었지만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우리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그 대상이 중학교까지"라며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부유한 학생들 모두 골고루 교육혜택을 받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문성 높이고 자질 향상 큰 기대” “객관성 상실 속 퇴출자 몰릴 우려”

교원평가 전면 실시 ... 교단 엇갈린 반응

교과부가 내달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자 광주·전남 지역 교단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장·단기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능력

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 말 공포된 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교사평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한 번 교사가 되면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교단에 안주하는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을 연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한다.

광주지역 고교의 한 교사는 "학부

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담임 교사도 잘 알지 못하는 데 타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평가의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객관성이 결여된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하년도 시정하지 않은 채 평가를 시행, 그 결과로 연수 대상자를 선별하면 교단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장기 연수자로 각각 4명과 7명, 9명이 선정됐으나 해당 교육청이 전원을 단기연수 대상으로 구제, 실효성의 문이 제기된 지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일단 평가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래방 ‘2부 영업’ 아시나요”

1부 영업 하다 밤 10시 넘으면 호스트바 변신 10~20대 남자 도우미를 고용해 성매매까지

오후부터 저녁(1부 영업)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다가 심야시간대(2부 영업)만 되면 여자 출입 전용 업소로 변신, 남성들의 성매매까지 제공한 노래방(주점 포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이 심야 새벽에 호스트바로 변신하는 노래방의 업주들과 남자 도우미를 업소에 알선해준 보도방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도방 업주 오모(26)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시 서구 치평동 한 건물에 보도방을 차려놓고 남성 접대부 30명을 고용한 뒤, 인근 A주점·C노래방 등 10곳에 남자 도우미 한 명당 3만원(시간당)을 받고 알선해줬다.

오씨가 알선해준 주점·노래방은 이른바 '2부 영업'을 하는 곳으로 오후·저녁에는 구청에서 허가받은 데

로 주점·노래방 등 1부 영업을 하다가 밤 10시~새벽 2시 사이에 호스트바로 변신하는 곳이다. 경기불황을 겪는 업주 입장에서는 24시간 가계를 돌릴 수 있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업태를 선호하고 있다.

남자 도우미들의 세계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은 20대 초반~40대 후반의 회사원·가정주부 등 여성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거나 탬버린 등으로 술자리 흥을 돋우며 시간당 3만원을 받았고, 20만원을 받고 속칭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해왔

다.

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즉석에 옷을 벗었다. 가슴 등 신체에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것도 허락했다. '롤'이 있으면 가정집에까지 출장을 갔다. 적발된 남자 도우미 30명 중 2명은 10대였고, 나머지는 20대 초반이었다.

오씨는 2차를 거부하는 남자 도우미들에게는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돈도 수시로 빼앗았다. 오씨가 지난 2년간 쾅긴 돈은 모두 4억 8000만원.

광주지방경찰청 공역수사대는 22일 보도방 업주 오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노래방·주점 업주 이모(44)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전남대 후문 인근 주점 화재 22일 오후 4시 25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체육공원 앞 삼가 밀집지역 한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 이 타오르자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단 결근·조퇴·공금 유용... 섬마을 선생님들 기강해이

감사원 4명 적발

전남 섬지역 분교장을 맡고 있는 일부 교사들이 무단 결근, 조퇴를 일삼는 등 북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회계담당자의 공금 유용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벌인 기관운영감사 결과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밝힌 조사결과 전남의 섬지역 중학교 분교장인 A교사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한 총 311일의 근무일 중 무단결근 9일, 무단조퇴 7회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분교장 B교사는 허위 출장서류를 제출,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는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 집행유예 4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공사편의를 발미로 아파트 대출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허영철(58) 전 해남군 부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 전 부군수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허 전 부군수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아준 건설업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지만, 허 전 부군수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은 감한했다"고 밝혔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 2009년 3억 6000여만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대출금(2억2000만원)을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의 약속을 한 뒤 이자 10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파트 휴면 시비 이웃간 몸싸움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40대 주민 2명이 아파트 북도 휴면 문제로 시비 끝에 서로 몸싸움을 벌여 나란히 경찰서행.

○2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 아파트에 사는 박모(32)씨와 옆집 주민 황모(40)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50분께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북도에서 서로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날 박씨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북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황씨가 "왜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느냐"고 따져묻자 언쟁을 벌이다 서로 갖다가 폭행.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림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제공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역,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문화재, 경찰학, 교육학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률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제공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